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 골든클럽 회보

## GOLDEN CLUB NEWSLETTER

NOVEMBER 2022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27

### 한국여행을 마치고



2년전에 계획했다가 Pandemic으로 중단되었던 한국여행을 금년 초에 다시 추진하면서 방역규제 완화와 악화 여부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망설이기도 했으나, 참가예정 회원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조심스레 진행한 것이 시기적으로 여건변화에 부합되어 해외여행 성수기 이전에 행사를 마치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30명 여행단 전원이 9월 19일 저녁 서울 호텔에 집결하여, 다음날 서울대 관악캠퍼스 방문을 시작으로 목포-진도, 통영 한려수도, 부산 해운대 일대, 경주-석굴암, 속초-설악산, 고성-통일 전망대를 구경하고 서울로 돌아오면서, 너무나도 발전한 주거환경, 고속도로, 터널, 교량, 공원과 수준 높은 음식문화 등에 감탄하였으며, 곳곳에 설치된 화장실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일행 중 고애자(사대 58) 선배님은 작년 말 허리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여, 항공기 탑승, 관광지 이동시 walker(보행보조기)에 의존하면서도 열정적으로 참여하셨으며, Wife를 따라 세번째 한국을 방문하는 Steven Bernstein은 한국어 이해는 못

하지만 열심히 안내지를 들여다보고 변모해 가는 한국의 발전상에 흥미를 보이며, 한국음식을 가리지 않고 맛있게 먹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한편 조달훈(사대 66) 회원 부인(조승자)의 오빠(이경배, 사대 61)와 큰언니(이설자)가 여행단에 정식 참가하여 여행일정을 함께하며 뜨거운 가족애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여행에 전직 의사가 여섯 분이나 계셨는데, 여행단의 대다수가 70-80대 중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기 몸살 배탈 등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은 분이 한 분도 없었음은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또한 특기할 것은 여행기간 중 이종대(약대 65) 회원 부인의 언니가 사망하셨다는 비보를 받고도 여행단 전체 분위기를 고려하여 일체 내색하지 않고, 서울로 돌아온 후에 유족들을 조위하면서, 당초 예정했던 결혼 50주년기념 동남아여행은 부득이 취소하는, 공동체 정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한국여행은 손대홍 회원의 치밀한 준비와 진행으로 비할 바 없는 격조 높은 여행이 되었으며, 참가회원 대부분 그동안 또는 앞으로 한국 방문의 기회가 별로 없는 가운데,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값진 추억의 여행이었다고 이구동성이었습니다.

## 골든클럽 11월 골프대회



올해 마지막 골프대회를 많은 회원들께서 애용하시는 버겐카운티의 명품 골프장 Rockleigh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프대회후에 객선섭 회원께서 뒤풀이를 자택에서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장소를 제공하셔서 더욱 뜻깊고 기억에 남을 모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날짜:** 11월 3일 (목요일)

**시간:** 11시 tee off(11시-12시 10분 / 28명) (10시까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Rockleigh Golf Course (RED-WHITE)  
15 Paris Ave, Rockleigh, NJ 07647참가비: \$120

**신청:** 김정필  
(201)965-7759 / email: jaykim@keiusa.com

##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동창회 2022 송년의 밤 개최 안내



**날짜:** 2022년 12월 3일 토요일 오후 4시 - 9시

**장소:** Double Tree by Hilton, Fort Lee, NJ

Covid 19 Pandemic 으로 2019년 이후 다시 시작하는 송년의 밤에 동문, 가족 여러분과 더불어 한해를 보내는 뜻깊은 날입니다. 모든 동문 가족들이 참석하여 함께하는 기쁜 날이 되도록 바라며 초대말을 전해 드립니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New York Chapter

회장 금영천

이사장 성기로

## Florida 겨울 골프 여행

Florida 동문회 초대로 2020년 1월 하순 Covid 직전과 2022년 1월 Covid 와중에 이어 내년 1월 3차 골프여행을 추진하면서, 참가 예정회원 규모를 파악하여 적절한 숙소를 모색하고자 하니, 11월 5일까지 신청바랍니다. 소요경비를 실비 분담하는 개념으로, 6박 5일 골프여행에 일인당 숙박 \$500, 골프(저녁포함) \$600 수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간만 참여하거나 별도의 숙소를 이용하는 경우도 유연하게 고려하겠습니다.

**골프여행 지역:** West Palm Beach-Fort Lauderdale area

**일정:** 2023년 1/22(일)~28일(토), 월-금요일 5 round golf play

**집결공항:** West Palm Beach Airport(PBI),

1/22 오전 도착, 최히덕 회장댁에서 환영만찬

1/28 12시 이후 출발

**참가회비:** \$1,100, 숙박300, 조식/공동비용100, 차량운영100, 골프 600

**숙식:** Airbnb 4-5 room에 10명 체류.

**연락 및 참가신청:** 홍종만 646-342-2667,  
hong1945@gmail.com



# 뉴욕동창회 추계골프대회 보고



10월 12일 New York의 Wallkill Golf Club에서 동창회 추계 골프 대회가 열렸다. 골든클럽 한국방문단 그리고 환절기에 많은 분의 건강이 여의치 못하여 24분만 참석했지만 모처럼 좋은 날씨에 잘 가꾸어진 fairway와 green과 함께 매우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 대회를 위하여 성기로 이사장님이 특별히 \$500을 기증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린다.



이어서 골프장 라운지에서 스테이크 /파스타와 샐러드로 잘 준비된 식사와 맥주를 나누며 새해에는 더 풍성한 대회를 다짐하였다.

시상내역: (Callaway 방식)

Medalist	김정필	93
Champion	이태호	99/74
1등	최병우	104/74
2등	김영만	95/75
	민준기	105/75
3등	유호근	97/76
	최복자	98/76
	오용호	96/77

Close pin:

- 3번홀 박기환
- 7번홀 김병순
- 11번홀 김두현
- 15번홀 김흥식

Longest: 12번홀 임도혁

## 회원가입을 환영합니다.

**이태호**, 상대 58년 입학  
 (M) 951-587-5979  
 (E) taeholee125@gmail.com  
 Lee Tae-ho  
 10 Kristi Dr, East Hanover, NJ 07936

**권문웅**, 미대 61년 입학  
 (M) 973-600-0834  
 (E) moonk206@gmail.com  
 (DOB) February 6, 1940  
 (Spouse) 권정화  
 Kwon Moon-woong  
 254 Orchard St, Elmwood Park, NJ 07404

**박상원**, 음대 69년 입학  
 (M) 917-324-2989  
 (E) sangparkny@gmail.com  
 (DOB) April 10, 1952  
 Park Sang-won  
 81 Torchia Rd, Cold Spring, NY 10516

제1회 뉴욕 대한민국 음악제가 11월 13일에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연주회에는 박동명 지휘자, 이준희 바리톤, 민한별 소프라노 등 동문 음악인 30여명이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으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친근한 많은 명곡을 준비하였다고 하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금영천 동창회장에게 문의하면 50%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골든클럽 한국여행 보고

■ 손대홍 (미대 79)

이번 한국여행의 주제는 '그리운 한국의 멋과 맛을 찾아서'였습니다. 여행에는 30명이 참가하였으며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모든 참가자가 건강하게 모든 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같은 일은 여행 기간 내내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고 오히려 반팔을 입어야 할만큼 따뜻한 날씨에 한국의 가을 하늘을 만끽할 수 있었던 청명한 날이 여행기간 내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한국여행기간 첫 날부터의 일정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 9월 19일 (월요일)

30명 중에 19명이 일정보다 일찍 한국에 입국을 해서 개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공지된 대로 9월 19일 오후 5시까지 마포구 흥대 부근의 아만티 호텔에 체크인하면서 집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9명은 갈비정식이 준비된 인근의 식당에서 6시부터 식사를 하며 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나머지 11명은 9월 18일(일) 홍종만 회장님의 인솔하에 JFK를 출발하여 항공기 내에서 낱자를 넘겨 19일 오후 5시 4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을 하였고 모두가 사전에 등록한 Q-Code로 입국장을 바로 나와 PCR 검사장으로 이동하였는데 사전에 검사예약을 해 둔 덕으로 옆의 미등록자의 긴 줄을 바라보며 10분도 안 걸려 검사를 마치고 준비된 리무진 버스에 올라 호텔로 가서 저녁식사를 하고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 9월 20일 (화요일)

사전 방문에 따른 안내를 요청하였는데 서울대학교 측에서 부총장님을 시작으로 학생처장, 지원과장, 동창회 사무총장 님까지 회신을 주시며 과분할 정도의 준비로 9:30분 캠퍼스 내 약속장소에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캠퍼스를 버스로 먼저 돌면서 여행 참가자들이 처음 방문하는 관악캠퍼스의 웅장한 모습을 보며 감명해했고 그 다음 도서관으로 가 골든클럽의 회원이었던 고 정인식 동문께서 기증한 '정인식 극장'을 방문하고 송학린 동문이 기증한 스테디 룸을 둘러보고 이어서 많은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는 규장각으로 이동하여 소장품들을 감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암교수회관으로 이동하여 총동창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즐기며 사무총장님과 답소를 나누고 모두가 선물까지 받으며 모교를 떠나 용산역으로 가 처음 타보



는 KTX 고속열차를 타고 목포로 가 대기중이던 리무진 버스로 옮겨 타고 전라남도 진도로 향했습니다.

첫날 저녁은 전북탕에 낙지초비빔밥. 바닷가에 왔다는 것을 실감하며 예약된 숙소인 쏠비치 진도에 도착하였는데 호텔의 화려함과 객실 창문 바로 앞에 펼쳐지는 밤 바다의 모습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 9월 21일 (수요일)

부지런한 사람들은 새벽부터 바닷가 산책에 멋진 사진촬영까지 마치고 호텔 뷔페로 아침식사를 끝낸 후 차에 올라 조선의 전라도 지역 옛 수군 본부였던 남도진성을 지나 추사 김정희의 제자이자 조선 후기 전통남화의 대가인 허련 선생(1808~1893)이 거처하며 여생을 보낸 화실 윤림산방에 들러 아름다운 풍광을 사진에 담고 다시 여수 오동도로 향하여 배를 타고 들어가는 유명식당에서 하모라고 불리는 갯장어 샤브샤브로 점심을 하고는 경상남도 통영으로 출발했습니다. 저녁 무렵 통영에 도착하여 각종 조개와 새우 등 해산물구이로 저녁식사를 마치고 거북선을 띄어 놓은 통영 바다 앞의 스탠포드 호텔에서 3일째의 밤을 맞이했습니다.

## 9월 22일 (목요일)

통영의 특산물인 매생이와 굴이 든 굴국밥으로 점심식사를 간단히 하고 거제도에서 배를 타고 새우깡을 물어가는 갈매기들의 묘기와 해금강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수학

선생 출신의 교사 부부가 평생을 가꾸어 놓은 섬 외도 보타니아에 내려 아름다운 정원과 섬의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정신없이 기념촬영들을 하고 다시 배를 타고 출발하여 거제시로 나와 해저터널과 가거대교를 건너 부산의 동래온천에 있는 호텔 농심에 도착하였습니다. 풀코스의 한정식으로 저녁식사를 마치고 호텔의 부속시설인 동양에서 가장 크다는 온천탕에 가서 오랜만에 한국식 목욕으로 피로를 풀었습니다.

## 9월 23일 (금요일)

모처럼 호텔에서의 조식을 피하고 주변의 유명 복 전문식당에서 시원한 북국으로 속을 풀며 아침 식사를 하고 부산 송도로 향했습니다. 바다가 훤히 보이는 해상 케이블카를 타고 해상공원에 내려 멋진 풍경을 즐기고 단체 사진을 찍고 돌아와 부산의 명물 가자미 미역국을 먹고 영화로도 유명한 국제시장, 자갈치시장을 둘러보고 해운대로 가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옛 동해남부선 철도를 활용해 만든 관광열차를 타고 송정해수욕장에 내려 유명한 영변횃집에서 세교시회에 다양한 해산물을 맛보며 저녁식사를 즐겼습니다.

## 9월 24일 (토요일)

온천을 좀 더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 아침에 온천욕을 하고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경주로 출발하였습니다. 경주박물관을 돌아보고 유명 삼남 식당에서 점심을 마치고

고 보문단지의 호반에 위치한 아름다운 호반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라한셀렉트라는 호텔에 여장을 풀고 토함산에 올라 석굴암을 둘러보았습니다. 떡갈비로 저녁식사를 마치고 안압지로도 불리는 신라시대 별궁터였던 동궁과 월지의 화려한 야경을 감상하였는데 수많은 인파 속에서 조금은 고생스러웠지만 정말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야경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9월 25일 (일요일)**

식사를 마치고 조금 일찍 호텔을 출발하여 동해안을 따라 북상을 하였습니다. 새해 첫 날이면 수많은 인파가 몰려 새해의 첫 일출을 본다는 정동진 모래시계공원을 들르고 간장계장, 전복장 등 수북한 해산물로 유명한 삼척의 일미담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남해항의 스카이워크를 지나 관동팔경의 하나인 추암 촛대바위를 보고 절경의 위치에 소재한 롯데리조트 속초에 도착하여 체크인했습니다. TV드라마에도 나왔지만 전 객실이 동해바다를 바라보고 있어 발코니 밖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동해바다 경치에 모두 감탄을 하였습니다. 휴일임에도 우리를 위하여 문을 열어준 생대구탕집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다른 날보다는 조금 일찍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바닷가의 야경을 즐겼습니다.

**9월 26일 (월요일)**

아침식사를 마치고 바로 최북단의 통일전망대로 향했습니다. 의무적으로 관람해야 하는 동영상을 보고 걸어서 전망대로 이동하였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북녘을 보며 착잡한 생각도 들었지만 이내 눈에 들어오는 설악산 울산바위 아래로 이동하여 초당순두부로 점심을 마치고 울산바위를 배경으로 사진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카를 타고 권금성까지 올라 멀리 동해 바다와 속

초, 그리고 파란 하늘이 겹치는 경치를 감상하고 다시 내려와 신흥사를 둘러보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6시30분부터는 속초 동명항의 횃집 한 층을 빌려 푸짐한 해산물 상차림과 함께 이번 여행을 마무리하는 파티를 하였습니다. 여행기간 이동하는 버스에서 가장 잠을 많이 잔 사람, 가장 열심히 걸으며 일정을 소화한 사람, 어떤 메뉴든 가장 열심히 소화한 참가자를 투표로 뽑아 선물을 증정했고, 26일 생일을 맞은 홍예경 회원, 여행기간 결혼기념일을 맞은 이상무 회원 부부, 우규환 회원 부부, 이종대 회원 부부를 위하여 케익과 촛불로 축하를 하였는데, 특히 올해 결혼 50주년을 맞는 이종대 회원께서 저녁식사 와인을 제공하여 모든 참가자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에게는 이번 여행기간 중 촬영한 사진 2장으로 액자를 만들어 선물을 하였고 준비된 노래방 기계로 노래습씨를 선보이며 마지막 날의 의미들 더했습니다.

**9월 27일 (화요일)**

단체 사진 촬영 후 속초를 떠나 건어물 가게에 들러 가족들에게 선물할 선물을 사고 여행기간 중 처음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들러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먹거리도 맛보고 가평에 들러 유명한 불고기식당에서 한우불고기로 점심을 하고 북한강 호반에서 전통차와 커피를 마시며 경치를 즐기고 서울로 왔습니다. 버스에서 내리기 전 11월말 미국에서 뒤풀이를 하기로 하고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고 강남과 강북에서 한 번씩 정차를 하여 참가자들을 내려주며 이번 여행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조달훈 조승자 가족



김한중 테레사 김 부부



홍중만 홍예경 부부



이상무 이성자 부부

## 그리운 한국의 멋과 맛을 찾아 떠난 여행

■ 권정덕 / 홍선경

우리는 2018년 고교 졸업 60주년 기념 행사로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때는 사정으로 집사람의 기념 행사만 참석 후 몇몇 친지만 만나고 돌아와야 했다. 그 때도 많이 발전한 한국에 대해서 감탄하였지만 그 후에도 계속 전해 듣는 한국의 발전상, 좋은 먹거리 여행, 아름다운 남해안 관광 등으로 곧 한 번 더 가야지 하면서 미루다가 Covid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의 방역정책과 백신으로 Covid 사태가 잠잠해진 것이 2022년 전반기였다. 서울의대 Annual convention 이 4월 말에 있었고, 9 월에는 보류되었던 골든클럽 한국 여행이 다시 추진된다는 소식을 듣고 참석하기로 결정하였다. 수차의 정보 교환과 회의를 거쳐 9월 18일부터 ‘그리운 한국의 멋과 맛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 진행되었다. 우리는 9월 12일 본 그룹보다 먼저 미국을 떠나 한국에서 가족과 친구들 만나고, 첫 숙소인 흥대 입구 Amanti Hotel에 19일 본 그룹과 합류하였다.

다음날 9/20은 첫 여정인 서울대학교 방문으로 시작되었다.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는 여행 단원 대부분이 재학시에는 각 단과대학들이 서울에서 수원까지 흩어져 있던 것을 관악산 아래 큰 숲에 터전을 잡고 종합 캠퍼스 공사를 시작한 것이, 1980년에 완공되었다 한다. 1964년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 후에 미국에 온 우리에게는 말로만 듣던 관악 캠퍼스였다. 관악산 기슭 여기저기 우뚝 우뚝 즐비하게 들어서 있는 건물 사이로 무성한 삼림과 정원으로 꾸며진 관악캠퍼스는 눈물이 나도록 자랑스러웠다. 정문에는 국립 서울대학교 기스 첫째 자음을 따서 만든 열쇠 모양의 거대한 logo 가 서 있고 이 로고는 진리 탐구의 열쇠를 상징하는 미대 교수님들의 합작이라고 들었는데 이 거대한 쇠로 만든 로고를 정문 앞에 세워 놓은 것은 정말 멋진 착상과 도안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당시 독재적인 제제에 반항하거나 사상 갈등 문제로 들쭉이던 일부 학생들은 기스 가 공산당을 상징한다고 비아냥했다는 손대홍 회장의 회고담으로, 우리는 그 당시 재학생으로 어수선했던 사회적 분위기가 지 회고할 수 있었다.

모교방문 첫 행사로 대형 최신식 중앙도서관

관과 규장각을 방문했다. 이곳에는 한국 고유의 많은 고서들을 보관하고 있으며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으로 통합, 설치,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겹겹이 많은 건물 주위에 건물 이름이 최첨단 학문 연구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 오래 전에 지나간 학생 시절, 많은 양의 공부 때문에 지긋지긋 했던 대학 시절이 문득 그리워지고 이렇게 좋은 시설이라면 다시 한번 공부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불현듯 솟아올라 내 스스로 놀랐으며, 총동창회에서 베풀어 준 점심 식사에 기념품까지 받아 들고 관악캠퍼스를 떠날 때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가슴이 뿌듯했다

목포행 완행열차가 아닌, KTX를 타러 용산역으로 향했다. 70년대 이전의 서울역과 뉴욕의 Penn Station을 기억하는 저희에게 용산역은 “깜짝쇼”였다. 높은 천정, 넓은 공간의 hallway, 이쪽 저쪽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에스컬레이터 등은 신데렐라가 왕궁 무도실에 도착하여 느꼈을 그 황홀 감을 우리가 경험하는 듯했다

그리고 탑승한 KTX, 외모부터 미끈하고 산뜻한 기차, 편안한 좌석에 앉아 목포에 도착할 때까지 내다 보이는 풍경 또한 보통이 아니었다. 철도주변 도시에서 일어나는 신형 도시들의 건축 붐은 높은 건물들이 미술학적 고려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어서 건물을 바라보는 자체만해도 예술 감상이라고 생각했다. 거기에는 그냥 푸른 정도가 아니라 뽀뽀하게 들어선 나무로 우거진 동산, 벼와 다른 작물로 풍성한 들판과 논두렁을 보는 것도 정말 즐거웠다.

목포역에는 우리 일행이 타고 다닐 관광버스가, 별도로 보낸 우리들의 luggage를 가지고 도착해 있었다. 이제부터 우리의 여행을 돕고 안내할 두 명의 guide 가 합류한 후, 첫날 숙소인 진도Sol Beach Hotel로 향했는데, 해지기 전에 도착한 호텔은Las Vegas의



Caesars Palace를 연상시키는 해안 암벽을 이용한 Multi Level 건물이어서 또 한 번 이런 것이 한국에도 있구나 놀라게 하였다. 여장을 풀고 낙지 요리 연포탕과 전복회 전문점 정도회관에서 처음으로 맛집 저녁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니 Sol Beach의 야경은 정말 장관이었다. 목포에서 우리는 전복, 낙지, 멍게 등 귀한 남해의 해산물이 상에서 넘쳐나는 음식의 향연으로 본격적으로 맛을 즐기게 되었다. 다음 날 여수 오동도를 구경하고 점심으로 갯장어 샤브샤브, 늦저녁에는 통영에 도착하여 장어 숯불구이로 배를 불리고 스탠포드호텔에 묵었는데 다음날 조식Buffett 가 한식과 외식으로 진수성찬이었다.

아침 후 ‘바람의 언덕 1호’ 유람선을 타고 외도(Oedo)로 향했다. 높이 솟은 해변절벽의 기이한 바위와 위에서 서 있는 나무들이 절경이었는데, 이 바위섬은 “해금강”이라 불린다. 외도는 평범한 시민이었던 이창호씨 내외가 1969년부터 섬에 살던 주민들에게서 토지를 매입하여 상주하는 주민이 없는 섬에다가 아열대 나무를 위시한 아름답고 귀한 식물들을 심고 만든 정원이다 그곳에 그리스 신전과 같은 조형 건물과 조각 신상들을 배치하여 외국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드는 남해의 명물 botanical garden 이 된 것이라 한다. 파란 바다, 하얀 해변, 적당한 높이의 해변가 건물들 그리고 바다에 떠 있는 듯한 몇 개의 작은 섬들과 그들을 이어 놓은 하얀 다리, 그 위에 펼쳐진 맑은 푸른 하

늘의 정경, 이러한 한국 남해 한려수도의 풍경은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해상 관광지라 생각된다.

호텔에 들릴 때마다 식사량이 줄어든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마음놓고 싹껏 먹어 보지 못하게 됨이 억울했고, 점심으로 장어 사부사부, 굴회나 굴국밥도 먹어가며 거제를 지나 부산의 농심호텔에 도착해서 여장을 풀었다. 동래에 있는 농심호텔은 자연수 혼천과 찜질방이 달려있는, 또 호텔 객실에도 온천수로 목욕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을 가진 호텔이었으며, 이 호텔 옆에 붙어있는 내당에서 한정식 저녁을 맛보았다. 이틀 체류 예정으로 오랜만에 아침에 떠날 준비를 안하고 근처에 있는 통일졸복집에서 복요리를 맛보았으며 자연산이 아닌 양식 복어는 독이 없다는 것도 알았다. 부산의 오락도는 여섯 개의 작은 섬아 보는 장소와 각도에 따라 두개부터 다섯으로 보인다고 해서 부쳐진 이름대로, 보이는게 실제는 아님을 경험하였다. 오락도 스카이워크, 송도 해상 케이블카 등을 경험하였다. 호텔 농심에서의 온천욕도 빼놓을 수가 없다. 대중탕이라서 수영복을 착용하려고 했더니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본다고 해서 객실 안에서부터 나체로 벽장에 있는 로브를 입고 국내 최대 온천인 허심청에 올라가 몇 가지 다른 온도의 온천욕을 즐겼는데 다행히 남녀 공용은 아니었다.

다음 행선지는 경주의 다섯 역사 유적 지구 중 옛 왕궁 터였던 월성의 Lagan Select Gyungju 에 도착하였다. 도시 전체가 노천 박물관이라고 불릴 만큼 경주는 유네스

코에서 지정한 세계적인 역사 도시이다. 버스 안에서 볼 수 있는 곳곳에 퍼져 있는 왕능들, 수많은 석가탑과 다보탑의 모조품들, 그리고 청기와집들을 구경할 수 있었다. 경주 박물관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왕궁들의 모형과 안압지를 익히고 한우리가든에서 떡갈비 정식을 먹었다. 석식 후에 월지 야경을 나갔는데 안 갔으면 평생 후회할 광경이었다. 늦은 밤인데도 많은 관광객이 봄비는 것이 이상 하였는데 관광이 끝나니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했는지 이해가 되었다. 월지는 신라 왕조에서 외국 사절을 대접하는 장소였던 안압지의 근대 명칭이다. 월지 야경은 휘황찬란한 조명이 있는 왕궁과 나무들이 바람결 없는 연못 물에 비쳐진 짜와 복사된 경치가 조합된 독특한 밤 경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었다.

경주를 떠나 다음날은 저녁에 속초 롯데리조트에 도착하였다. 이 호텔에서 바라보는 바다 환경이 너무 좋아 다음날 아침에는 고달픈 잠을 깨고 새벽에 일찍 나가 호텔 주변 바닷가를 거닐었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타고 설악산 국립공원을 볼 때 멀리서나마 북녘 금강산 해금강 언저리도 결눈질하였다. 그 다음 고성 of 통일전망대를 방문하며 부처님과 함께 통일을 염원하였다. 포장 도로가 남쪽에만 있다가 끊겨진 것이 인상적이었다.

한국 순회여행 마지막 전야에 헤어짐을 아쉬이 하며 '최후의 만찬'이 이어졌다. 저녁식사 후 여행도중 생일을 지낸 이상무, 흥예경 회원, 결혼 50 주년을 맞은 이종대 회원 부

부와 축하 케익을 나누며 건배를 하고, 분위기를 노래방으로 바뀌어 모두가 한바탕 즐기고 나니, 손대홍 단장이 어느새 준비한 개인별 기념 사진 frame을 우리 모두에게 건네 주며, 아쉬움 속에 막을 내렸다.

다음날은 가평의 통일교회 세계본부가 있는 궁궐 같은 건물과 정자같은 찻집에서 꽃차도 마시는 경험을 했다. 문선명 교주의 세계적 규모 선교와 비즈니스를 이끌었던 그의 카리스마는 하늘의 지혜였는지 또는 인간의 어리석음이었는지 생각해 보게 하였다.

마침내 30 명의 Golden Club 한국 여행단이 같이 식사하고, 같이 버스 여행하고, 같은 지붕 아래 잠자면서 십여일을 함께 지내고 나니 더없이 정이 들었고, 어느새 친밀해진 처음 만난 분들도 헤어짐이 아쉽고 섭섭했다. 모두 새롭고 많은 것을 체험하여 즐겁고 화목하게 지낸 이번 여행은 오랫동안 아름답고 귀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더욱이 수고해 주신 손대홍 단장께서 "본인의 부친께 해 드리지 못한 관광에 대한 염원을 채워 드리는 심정으로 저희 회원들을 위해 이 여행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희도 감격하였으며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셨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번 여행의 기획과 진행을 맡아준 손대홍 단장에게 더 바랄 수 없는 천재일우의 기회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으며, 몇 년 전부터 여행을 구상하고 추진한 흥종만 회장에게도 항상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한태진 한윙희 부부



유규환 우영순 부부

# 골든 클럽 과 함께 한국 여행을 다녀와서..

■ 윤종숙 (약대66)

한국여행을 하고 돌아온지 열흘이 지났다. 아직 시차극복을 못하여 낮에는 졸립고 밤에는 초롱초롱하여 잠들기가 힘들다. 이제 서야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어나 있긴 하지만. 지금도 낮에는 머리만 대면 잠들고, 밤에는 잠들기 힘들어 하고 있다. 이상하게도 한국에 가면 시차극복은 언제나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 돌아오면 시차 극복이 잘 안 된다. 왜 그럴까? 한국에는 25년 있었고 미국생활 50년인데도 이 지경이다.

여행을 시작할 때, 코로나로 인한 서류 준비가 많아 몹시 신경을 써야 했다. 손대홍단장님의 자상한 지침을 따라 하나씩 준비하긴 했지만 보통 번거로운게 아니었다. 공식 여행 일정은 9월 19일에서 9월 27일까지 인듯하다. 나는 9월 15일에 JFK를 떠나 9월 16일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3일쯤 미리 가서 시차극복을 해 놓으면 여행하기가 좀 쉬우리라는 충고대로 나는 3일쯤 일찍 아만티호텔에 가서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덕분에 동생가족들이 예약해 놓은 청와대 방문도 하고, 졸업후 만나지 못했던 약대 66동기 절친들을 만나 점심을 먹으며 담소를 나눌 수도 있었다.

9월 19일에는 먼저 도착한 일행과 경북공서교점 식당에서 저녁식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낮에는 흥대입구를 둘러보기도 하였다. 9월 20일에는 어제밤 늦게 도착한 뉴저지팀과 합류하여 아만티호텔에서 뷔페로 조식을 하고 큰 가방은 진도로 미리 부치고 공식일정으로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를 둘러보고 서울대 동문 동창회가 마련한 점심식사를 호암교수회관 상그리라에서 하고, 준비하신 푸짐한 선물을 받았다. KTX로 목포까지 가서 대기하고 있던 전세버스를 타고 솔비치 진도에 가서 가방을 찾아 예약된 호텔방에 투숙할 수 있었다.

다 모인 우리 일행의 수는 30명이었는데, 항상 노년이라고 늙은 체하던 나는 30명 중 10명이하의 젊은 축에 속하였고, 60대인 손대홍 여행단장 부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80세 전후인 노년들과의 여행이 시작되었다. 연약하여 자신이 없었던 나는 그래도 나보다 연세들이 높으시니 이 정도는 따라갈 수 있겠지 했으나 어렵도 없는 일이 되었다. 모두들 어찌나 잘 걷고 빠르신지, 하다못해 허리수술을 하고 회복기에 지팡이를 짚고 따라

나선 고애자선배님도 나보다 잘 걷고 강하시다고 나는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모두 정신력으로 버티시는 분들이라 그런가?!

우리의 여행은 날씨로 축복을 받았다고 누군가가 말했듯이 방금 전에 태풍이 지나간 흔적도 없이 한국의 가을 날씨는 맑고 쾌창하여 말 그대로 천고마비의 높고 맑은 하늘을 만끽하며 따뜻하고 덥기까지 하여 화창한 날씨로 여행을 더욱 더 즐길 수 있었다. 나는 약간 쌀쌀하리라 예상하여 가져간 가을 옷들로 인해 룸메이트의 깔깔대는 웃음을 뒤로 매일 썼다 풀었다 하는 가방의 짐으로 인해 괴로워하며 여행의 즐거움이 절감하는 듯했다. 또한 갑자기 불어난 몸으로 있던 옷들이 맞지 않아 새로 장만한 옷들이 몸에 붙지 않아 괴로움을 배가하였다. 단지 송근숙(간호66) 동문부부도 같은 오류를 범한 듯하여 조금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나의 roommate는 흥정표(음대67) 동문이었는데, 부산에 집이 있어 부산에 있다가 합류하였다. 늘씬한 키(170cm)에 날씬하여 70대 할머니같지 않은 맴씨로 날씨 조준도 잘하여 계절에 맞는 옷을 잘 준비하여 여행을 백퍼이상 즐기고 있는 듯했다.  
부러워~ πππ

한국은 나라전체가 관광단지가 된 듯, 가는 곳마다 아기가기하고 이쁘게 꾸미고 볼거리가 많은 듯하였다. 편리하고 편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꾸며 놓았고, 50년 동안 눈 부시게 발전한 조국은 미국인지 한국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서구화되어 있었다. 가는 곳마다 음식도 정갈하고 입맛에 맞아 여행하는 기분을 돋우어 주는 듯했다. 사실은 5년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살아 계셔서 1, 2년에 한 번씩 한국을 드나들었는데, 부모님과 함께 남한산성에 올라가 야경을 구경하고, 민속촌을 방문하고,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



만 갔었는데 전국순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 한국에 올 때는 딸네 가족과 함께 이번에 가지 못한 제주도를 가볼까 한다. 말없이 다가와 사진을 찍어 주시던 권정덕(의대58) 선배님과 흥선영 선배님 부부, wife 때문에 1등을 못했다고 은근슬쩍 자랑하시며 아쉬워하시는 권 선배님께 그래도 2명밖에 없던 여학생중 한명을 낚을 수 있었으니 대단하시다고 아부하며 위로해 드렸다. 이경배(사대61) 선배의 누님이신 이설자님은 손수 매듭으로 황금거북이를 만들고 턱받이를 만들어 선물해 주셨다. 내색은 하지 않지만, 필요할 때에 나타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던 홍종만 회장의 주문으로 내가 여행소감을 쓰게 되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자상하고 친절하게 질문에 답하며, 겸손하지만 유모어가 넘치고, 선배님 예우를 깎듯이 하던 손대홍 여행 단장님이 여행일지를 4 페이지로 준비하신다고 해서 나는 나의 소감만 간단히 적으면 되겠구나 하고 안도했다.

연세가 들었음에도 한사람도 이기적이거나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몸에 배인 분들과 단체여행을 하며 한사람도 낙오하거나 사고 없이 무사하게 여행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참 감사하게 생각한다. 참으로 여유롭고 풍요롭고 마음도 넉넉해지는 여행이었다. 남을 배려하며 여행을 즐겁게 만드는 분들이 함께하여, 아름답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수 있어서 함께 여행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Enthusiastic Embrace of Modernization

■ Steve Bernstein (Mr. Gunsook Song Bernstein)

I have been to Korea several times over the course of my 43 years marriage. Mostly for family visits and not really touring the country. This time however was different. Just a bus tour with the Golden Club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a couple of exceptions. Kunsook and I arrived a few days prior to meeting the main group of travelers 30 of us in all. My wife's cousin took us from the Amanti Hotel to the National Cemetery where we paid our respects to her deceased parents, her father who was killed during the Korean war and her mother who was interred beside him. The cemetery was like an oasis in the middle of a large urban sprawl. Meticulously maintained with memorial flowers on row after row of graves. I mention this here because the cemetery is now full. In previous visits it was not quite full. We spent about an hour among the deceased war heroes and performing a ceremony in memory of her father and mother. The alumni group we were traveling with were all about the same age as us and I realized that like my wife had little memory of that tragic time of the Korean war. I of course had no memory to share but still I was deeply affected by the somberness of the occasion.

Next stop for us was a campus tour and lunche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The campus, library, and media center were state of the art. Buildings were nestled in on the mountainous terrain blending seamlessly as if they were always there formed by nature. Upon our return from Korea the media center took on new importance. There is now on "Netflix" a series called "The Extraordinary Attorney Woo" about an autistic attorney who graduated (along with all the major characters) from SNU Law School. It's now quite clear as to why Korean Pop Culture has spread throughout Asia. Finally, there was a luncheon with the Secretary General, Lee Sung Moo. The food was delicious although I had no idea what I was eating. Dr. Kim Hanjong was honored as the senior member of our group.

After then, we took a high speed KTX train south to our destination the Sol Beach Jindo, a beautiful resort hotel with rooms overlooking the picturesque South Sea. A breakfast buffet that would put Las Vegas to shame was provided to the hotel guests. The other hotels were equally impressive. The following week was spent sight seeing and staying in luxurious hotels with excellent food. One of the many sashimi dishes was grilled eel made on a hot charcoal BBQ. I think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this trip and my previous trips was the enthusiastic embrace of modernization.



Everywhere, there were wide modern roads (always clogged with traffic), towering glass and steel skyscrapers with people in constant motion and always in a hurry. Everyplace I looked there were construction cranes, coffee shops and karaoke bars. A big change from previous visits.

What impressed me the most however was the sincerity, warmth and generosity of the people we met and of course the group we toured with. Kunsook and I are both looking forward to another visit to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in the not-too-distant future.





## 운동과 씨뿌리기

■ 여주영 (특별회원)

아들은 여러 나라에 비행기를 자주 타고 다니며 늘 컴퓨터에 앉아 일을 많이 하는 편이다. 그래서 허리에 조금씩 무리가 올 만한 상태였다. 그러자 코로나가 시작된 후 처음 시간을 내어 운동이란 걸 제대로 하기 시작했다. 아내와 네 딸들을 위해서라도 해야겠다 마음먹고 아들네 가족은 지금 특별한 일이 없고서는 매일 2년째 운동을 하고 있다. 그들은 gym에 가지 않는다. 집 앞 놀이터에서 노 마스스로 누가 보든 말든 하던 것이 벌써 800일이 넘었다고 했다. 이제는 사람들이 아들네 식구를 알아보고 다가오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2년이 지나자 아이들의 몸에 불필요한 군살이 다 빠지고, 배에는 ‘왕(王)’이라는 글자가 생기고, push up을 100개 이상 하니 어깨가 딱 벌어지기 시작하더라고 했다. 그리고 나와 내 딸도 아들이 연마해준 운동을 시작했더니 점차 팔다리 근육과 몸의 균형, 마음의 질서가 생기기 시작했다.

아들은 지난 3월, 코로나 사태가 거의 끝날 무렵, 가족 여행 차 자기네 여섯 식구와 우리 가족을 데리고 멀고도 먼 섬 Guam으로 향했다. 말하자면 온 가족 추억 여행이다. 그러나 이 먼 곳까지 갈 때는 단순히 추억 쌓기만은 아니었다. 알고 보니 우리 가족의 건강 증진을 위한 특별한 목적도 있었다. Guam은 평소 한국인이 들끓는데 이때만큼은 한국의 방역 대책으로 한국인이 그림자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한산했다. 이를 노리고 아들은 마치 섬 전체를 세 얻은 듯, 우리 가족은 모두 조용하고 아름다운 섬에서 모처럼 쉬며 즐기며 운동하며 그야말로 파라다이스에서 잊을 수 없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한 것은 운동을 통해 전 가족이 하나 되고 앞으로 보다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족의 건강 증진을 위함이었다.

우리는 매일 보고 싶은 Guam의 이 곳 저 곳을 구경하고 함께 운동하기 좋은 곳을 찾아 아들의 구령에 맞춰 비 오듯 땀 흘리며 무릎 올려 걷기, 앉아서 걷기, 양 다리 올리기, 양 팔 돌리기, 외발 서기, 외발 서서 돌리기, 발 뒤로 올리기, 팔 굽혀 펴기, 하늘 향한 팔꿈치 복싱, 스quat(squat), 플랭크(plank) 등을 매일 거의 두 시간씩 훈련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 못할 것 같았다. 그러나 참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아들의 불호령(?)에 어른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 꾀없이 따라 했다. 그 결과는 달콤했다. 삶에서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을 것이다. 땀 흘리지 않고 어떻게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번 훈련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고, 집안에 누가 한 명이라도 아프면 온 가족의 삶이 황폐해진다는 지론으로 이에 필요한 운동을 연마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집안에서 가장 연장자인 내 경우, 평소 팔, 다리 근육 강화 운동으로 노후에 쉽게 넘어져 뼈가 부러지거나 자리에 누울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격렬한 운동을 통해 노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치매 등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최근 몇 달간 발표된 주요 연구들은 치매에 대해 가장 포괄적인 보

호를 제공하는 신체활동의 종류, 강도 및 기간을 특성화 하고자 시도했다. 한 번에 수천 명, 심지어 수십만 명을 추적한 이 장기간의 연구들은 다양한 형태의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치매 발병 위험을 줄이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땀 흘리는 운동이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보통 주당 150분 해야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 놀라운 사실은 치매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위험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 이후 우리는 각자 돌아와서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힘든 체형을 통해 얻은 운동 실력을 당연한 일과로 착실히 실천하고 있다. 폭 폭 찌는 날씨에도 Guam에서 지치지 않고 맹렬하게 연습했던 그 운동이 아니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제와 생각하면 Guam에서의 한 달 극기 훈련이 그 당시는 정말 어렵고 힘들었어도 얼마나 소중한 값진 것이었는지 모른다. 여하튼 쉬지 않고 이어지는 작은 노력은 기적을 만든다. 우리 모두 운동에 솔선해서 화이팅! 역전승 하는 마음으로 당장 실천한다면 머지않아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매일 작은 씨를 뿌린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미루지 않고 오늘부터 당장 씨를 뿌리는 일이다.



회원 명단 (117명 / 2022-10-24)

강교숙	김병순	최숙희	오인석	이태호	최순채
강에드	김상만	박희병	유규환	이행선	최준희
강영선	김승호	배상규	유무영	이홍빈	최진영
계동휘	김영덕	성기로	윤선구	임도혁	최철용
고애자	김영만	손갑수	윤종숙	임창우	최학주
곽상준	김우영	손경택	윤현남	임호순	추재욱
곽선섭	김익성	손대홍/	이강홍	정도현	한영수
곽승용	김인형	남중현	이민제	정수일	한용오
구달희	김정필	손옥화	이상무	조달훈/	한대진/
권정덕/	김종울	송근숙	이준	조승자	안용희
홍선경	김창수	송웅길/	이대연	정해민	허용웅
권영대	김치갑	송현자	이대영	조상근	허유선
권태전	김태일	송학린	이범선	주상선	홍사만
김영천	김한중	송혜순	이수호	주재양	홍정표
김광수	김현중	신진식	이용대	진봉일	홍지복
김광현	김용면	신응남	이전구	천병수/	홍종만/
김동건	민준기	양인회	이종대	천종화	홍예경
김문경	박기환	오순문	이종석	최구진	
김문연	박상원	오용호	이준행	최병우	
	박준구/	오유섭	이준희	최수용	

2022년 연회비 납부 명단 (92명 / \$9200 / 2022-10-24)

강교숙	김문연	민준기	송학린	이상무	진봉일	한대진
강에드	김병순	박기환	신응남	이용대	정도현	안용희
강영선	김상만	박희병	신진식	이전구	정수일	허용웅
고애자	김승호	배상규	오순문	이종대	정해민	홍선경
권정덕	김영만	성기로	오용호	이종석	주재양	홍종만
권태전	김우영	손갑수	오유섭	이 준	천병수	홍예경
계동휘	김익성	손대홍	오인석	이행선	천종화	홍정표
곽선섭	김종울	남중현	우규환	이홍빈	최병우	홍지복
곽승용	김창수	손경택	윤선구	임도혁	최순채	
김영천	김태일	손옥화	윤현남	임창우	최준희	
김광수	김치갑	송근숙	이강홍	임호순	최진영	
김광현	김정필	송웅길	이대연	조달훈	최철용	
김동건	김한중	송현자	이대영	조상근	한영수	
김문경	김현중	송혜순	이민제	조승자	한용오	

2023년 연회비 김상만 정수일

2022년 후원금 기부 명단 (32명 / \$17900 / 2022-10-24)

강에드 300	김종울 200	신응남 500	이전구 1000	최철용 300
곽선섭 100	김한중 300	신진식 300	이종대 200	한용오 200
곽승용 100	박준구 1000	오용호 300	이준행 3000	한대진 500
권정덕 200	송학린 1000	오유섭 100	이행선 200	홍종만 1000
김영천 300	성기로 300	우규환 200	임호순 300	동창회 1000
김광현 300	손경택 1000	윤현남 500	정해민 500	
김승호 2000	송혜순 200	이강홍 200	천병수 300	

2022년 입회비 납부 명단 (5명 / \$1000 / 2022-10-24)

김치갑	송혜순	이민제	임창우	허유선
-----	-----	-----	-----	-----

발전기금 기부명단 (1명 / \$20,000 / 2022-10-26)

이준행 20,000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이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AA)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AA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T) 201-965-7759 (E) jaypkim@keiusa.com

성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입회비 \$200

단과대:

학과:

입학년도:

졸업년도:

연회비 \$100

전화번호:

Email:

후원금 (\$) )

주소 (Home):

골든클럽 2022년 행사 일람 (2022-10-24)

1월	23~29일	플로리다 골프트립 (12명 참가)
3월	26일(토)	신년교례회 -Atrium of Tenafly (81명 참가)
4월	14일(목)	Hiking - Lake Skannatati -취소
	21일(목)	Golf Outing -Sunset Valley (38명 참가)
5월	18일(수)	동창회 춘계 골프대회 -Walkkill (39명 참가)
	26일(목)	여성회원 피크닉 (18명 참가)
6월	9일(목)	Golf Outing - Split Rock Golf Club (45명 참가)
	16일(목)	Picnic - Rockland Lake State Park (50명 참가)
	23일(목)	Zoom seminar (슬기로운 supermarket)
7월	14일(목)	Golf Outing -Sunset Valley (37명 참가)
	28일(목)	Barnes Museum Tour, Philadelphia (취소)
8월	11일(목)	Golf Outing - Valley Brooks (30명 참가)
	20일(토)	뉴욕지역동창회 Picnic (80명 참가)
9월	14일(수)	Zoom seminar (노년의 자산관리)
	15일(목)	Golf Outing- Clearview, NY (36명 참가)
	18-30일	한국방문여행
10월	12일(수)	동창회 추계골프대회(Walkkil Golf Club,NY)
	20일(목)	Harriman State Park 산행 (취소)
11월	3일(목)	Golf Outing (Rockleigh Golf Club)
12월	3일(토)	뉴욕지역동창회 송년회 -Double Tree Hotel
1월	22-28일	골프트립, West Palm Beach, Florida
4월	1일(토)	신년교례회



11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 계동휘 (치대67)
- 김동건 (사대67)
- 민준기 (공대59)
- 박희병 (치대63)
- 송근숙 (간호66)
- 오유섭 (의대58)
- 윤종숙 (약대66)
- 이 준 (간호대)
- 최학주 (공대60)